

# 올해 지역성장 패러다임 '일자리'

### 전북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발표... 고용지표 개선·특화산업 육성 등 설정 2022년까지 13만4000개 창출

전북도는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성장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삼라농정, 신재생에너지, 미래산업,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지역문화관광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계층별일자리와 사회적경제 등 지역특색이 반영된 일자리 양성하기 위해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일자리 동력확보, 특화산업·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미래 혁신성장을 주도할 고용창출 역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에서는 정책방향 제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산업고도화 지원을 통해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며, 일자리 거버넌스에서는 상생경제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일자리 창출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러한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4년간 2조 633억원을 투자해 도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13만 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자리 성과목표로는 현재 93만 명 대인 취업자수를 약 96만 명대까지 확대하고 현재 59%대에 머문 고용률도 61%대까지 끌어올리며, 특히, 현 38만명 대인 상용근로자수

를 연 1.7%씩 확대해 4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5대 전략'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삼라농정 일자리를 강화해 농산어촌 소득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4차 산업과 연계한 지능형 농산업·기계·부품산업 육성에 2,959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특화 일자리 1만1,922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혁신을 주도하는 성장일자리 창출 사업에 4,810억원을 투자하여 4,396개 일자리를 만든다.

아울러, '삶의 품격을 높이는 활력 일자리' 6,991개 창출을 위해 2,4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아가 '더불어 잘 사는 포용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6,837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만7,361개를 만든다.

이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대응을 통해 '한 발 더 다가가는 공공일자리' 13,992개 창출을 위해 3,599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주요 분야의 실천계획이 담긴 만큼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상시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019 재경 전북도민회 신년 인사회 및 신입 도민회장 취임식'이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홍국 신임 재경전북도민회장, 김현미 삼수회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전북 대도약의 새로운 해”

### 재경전북도민회 신년 인사회

송하진 도지사 “경제체질 바꿔 변화 혁신 추진”  
‘하림그룹 회장’ 김홍국 신임 회장 취임식도 마련

'2019년 재경전북도민회 신년 인사회 및 신임 도민회장 취임식'이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출신 재경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를 이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현직 장·차관 및 국회의원,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과 주요 기관장 등 전북출신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회에는 재경전북도민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마련됐다. 앞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고인이 된 송하섭 전 재경전북도민회장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주요 인사 새해 인사, 제15회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시상, 장학금 전달, 건배 제의, 덕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은 장수 출신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산업·경제 부문)과 남원 출신 김병중 전 서울대 미대학

장(문화·체육 부문)이 각각 수상했다.

송 지사는 인사말에서 시인 구상의 '새해'라는 시의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는 구절을 들며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새해를 전북 대도약의 새로운 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 혁신은 전북의 경제 체질 개선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그간 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던 전북의 허약한 경제 체질을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신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수소 상용차와 홀로그래프,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현상으로 이전을 완료했다"며 "전북 발전의 용광로인 새만금의 열기를 더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9년도 새만금 국가예산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이야말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기반시설"이라며 "올해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비롯해 (새만금) 발전의 토대를 쌓는 데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와 관련 새만금 공항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준 재경전북도민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 도, 양파·가을무 등 농작물 재배농가에 1억4000만원 지원

전북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품목별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시장 가격이 하락한 양파와 '가을무' 재배농가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 발표)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가 1월 2일 최종 발표됨에 따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도는 양파는 전주, 남원, 김제 3개 시·군의 182농가에 1억3,700만원을 지원하고, 가을무는 군산, 순창 2개 시·군의 32농가에 300만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상품목 중 가격 하락한 품목은 양파, 가을무 2개 품목이고,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마늘, 생강 등 5개 품목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공공기관 올 상반기 인재 모집

### 오늘자로 14곳 132명 채용계획 통합공고 실시... 전개공, 상반기 채용계획 없어

전북도는 1월 10일자로 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132명을 신규 채용하는, 2019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통합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정규직 및 공무원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11명과 일시·간헐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18명이 대상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상반기 채용계획이 없으며, 채용예정 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별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채용계획 통합공고는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지원 채용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계획이다.

채용계획 통합공고와는 별개로 실제 개별 기관에서 채용절차 진행 시 채용공고를 별도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확인할 수 있다.

채용계획 통합공고는 상반기 연 2회 실시되며, 이번 채용이후 공공기관 채용은 올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긴급히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별 수시 채용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채용계획 통합공고문에서 기관별 채용 예정인원, 전형일정, 필기시험 과목, 근무지역,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별 채용계획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된 해당 기

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통합공고문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시·군·자치단체), 도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도내 주요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도내 주요 대학교와 협업체를 취업 관련 게시판 등에도 통합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용계획 통합공고는 도민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정한 채용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며 "더 나아가 도내 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경영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올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운영 계획 수립·시행

전북도는 2019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정부가 권장하거나 정책상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977억원이다.

전북도는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

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한다.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민간 보조금에 대해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선정 및 집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고,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2019년도 민간 보조사업은 다양한

단체가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한다.

관계적으로 특정 단체가 여러 보조사업에 참여해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모단계 선정 시 다양한 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개 단체에서 3개 이내 사업까지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나 재공고 이후에도 1개 단체만 공모에 응할 경우에는 민간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다음연도에 10%이상 예산을 삭감한다.

2년 이상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일몰제를 적용,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보조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